



제목	발굴과 해독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도서출판 푸른역사
발행일	1999. 11. 5.
저자	C. W. Ceram 오흥식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8-8987787183

내용 요약

이 책은 1871년 히타이트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현재까지 히타이트의 발견 이야기로 발견과 추측, 사라진 문자의 해독술, 하투샤의 왕들 등 히타이트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그 실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히타이트 제국이 1세기에 걸쳐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 일반 독자뿐 아니라 역사 입문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한 히타이트 민족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사료가 비교 언급되고, 히타이트어의 해독과정이나 히타이트 역사의 주요사건 연대의 확정 과정에서 사료비판, 언어 해독술, 연대학을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타이트의 역사를 알아내는 데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문자이다. 1880년 영국인 세이스가 하투샤에서 발견한 상형문자와 유물은 성서에서 말하는 히타이트 민족의 것이라고 발표했고, 1884년 윌리엄 라이트가 “히타이트 제국과 A.H. 세이스 교수의 히타이트 금석문 해독”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히타이트학이 시작되었다. 세이스 이래 여러 학자들이 히타이트 문자를 부분적으로 해독했지만, 1917년 흐르즈니가 “히타이트 민족의 언어”라는 책을 출판하여 히타이트어가 인도-유럽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체계적인 해독방법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독일 고고학자들인 비텔, 보서트에 의해 히타이트 상형문자까지 해독이 가능해지고, 오늘날에는 히타이트 역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